

## 조선시대 교직물 연구

장 현 주

동명정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기간제)

### A Study on the Blended Tabby of the Chosun Dynasty

Hyun-Joo Jang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 Myoung Information University  
(2002. 6. 4 투고)

#### ABSTRACT

1. The blended tabby whose warp and weft each employs a different kind of thread had been weaved since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in this nation and since the period of Han in China. Especially in the 15th century, very finely weaved fabrics as the specialty of Chosun were exported to China. In the 16th century, blended tabby weaved with silk and cotton were often used for clothes as cotton was produced around the nation. And in the 17th century, blended tabby employing high quality Chinese raw silk other than existing ones were weaved.

2. It has been found in literature review that Honpo, one of Chosun's blended tabby, was manufactured mainly in Hamkyung, Cholla and Kyungsang provinces and mostly distributed through markets of Chungchong and Cholla provinces.

3. Out of the total 19 fabric pieces, 13 employed silk thread as the warp and cotton thread as the weft. Compared with the weft, in general, the warp is given more tension when weaved and more friction by spindles, being more likely to be twisted than the weft. In addition to starching, a stronger thread is requested as the warp. It is natural that in the Chosun period, silk thread more stronger than cotton thread was used as the warp to make more durable fabrics. For the weft requiring lots of threads when weaved, cotton thread was mainly used in the 17th century because the thread could be easily obtained at that time.

4. So far the study has made an empirical review of Chosun's blended tabby, especially those of the 15th~17th century, in terms of thei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Findings from the study have some limit because they have been made focusing on the 15th~17th century not the whole period of Chosun. Therefore it is needed to complement those findings through further studies.

Key words : blended tabby(교직물)

## I. 서론

교직물은 서로 다른 성분의 실을 섞어서 제직한 것으로 이것은 경사와 위사에 각각 다른 종류의 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경사 혹은 위사간에 서로 다른 종류의 실을 섞어가며 제직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교직물을 제직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사용하는 실의 양이 충분하지 못하면 비교적 양이 많은 실을 섞어서 제직한다. 즉 국산 생사의 질이 낮아지고 그 양 또한 충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교직물을 생산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걸감이 명주일 때 안감에는 견사가 모자라서 견면교직으로 제직한 것을 비교적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명주보다 더 많이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교직물을 제직함으로써 견과 면, 견과 삼베, 견과 모시, 면과 모시 등 각각의 직물이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한가지 옷감으로 두가지 이상의 태를 느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그외에도 이 당시 하나의 유행경향으로 교직물의 물성이 사용자의 취향에 맞았거나 견직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치스러운 풍속을 단속하면서 이 교직물의 사용폭이 더욱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전통의 교직물은 混布, 絲麻교직, 絲綿교직, 綿麻교직, 춘포<sup>1)</sup>, 춘사<sup>2)</sup>, 아량주<sup>3)</sup> 등 다양하다. 그 명칭만큼 사용된 실의 종류 또한 다양하며 교직물에서 느껴지는 태도 다양하다.

조선시대에는 교직물의 명칭이 「세종실록지리지」를 비롯한 문헌에 混布라는 명칭으로 보인다. 「三國史記」권 제33 잡지 권 2(器用)조의 기록을 보면 6두품, 5두품에게 麤氈, 麤氈 등을 금한 기록이 있다. 이 중에서 麤氈는 대개 경사에는 麻絲, 위사에는 毛絲를 사용하여<sup>4)</sup> 철직으로 문양을 나타낸 것으로 엄격히 말하면 麻와 毛의 교직물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서로 다른 성분의 실을 섞어 가며 교직물로 제직한 것은 조선시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도 교직물은 이미 漢代부터 있었으며<sup>5)</sup> 交織布, 絲布, 雲布, 假羅 등의 명칭으로 전해진다.

北周에서는 絲布가 있었는데<sup>6)</sup> 이것은 면화 생산이 없었던 시기이므로 견마교직으로 제직되었다. 그러다가 明代에는 雲布 즉 絲布라고 하는 경사에 견, 위사에 면을 사용한 견면교직물을 생산했다<sup>7)</sup>. 清代에는 福建 泉州지구에서 생산된 견면교직의 絲布, 마면교직의 交織布와 저마와 면의 교직인 假羅 등의 명칭도 보인다.<sup>8)</sup>

일본에서는 고분 전기(3C말~4C) 최초로 경사에 견사, 위사에 저사를 사용한 견저 교직물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18C가 되어서야 문헌에 春日野, 春日島, アサギヌ 등의 교직물 명칭이 보인다.<sup>9)</sup>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교직물의 국내생산과 유통을 알아보고,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교직물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II. 교직물의 생산

조선시대의 교직물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임원경제지」 등의 문헌에 ‘混布’, ‘交織’ 등의 명칭으로 보이며 그 생산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교직물의 주요생산지는 함경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이었으며 조선시대 전 시기 함경도에서 가장 발달하였다.(〈표 1〉참조). 특히 함경도 지역은 대마직물의 생산이 활발했던 곳으로<sup>10)</sup> 이 지역에서 제직한 교직물은 대마와 교직된 직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쪽지방은 15세기에 전라도의 濟州, 旌義, 大靜, 16~18세기에는 경상도 東萊를 중심으로 생산되었다.

전라도에서는 조선시대 전 시기 저마직물이 특히 발달했으며 15세기에는 견, 대마, 면직물 등이 많이 생산되었다.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조선시대 전 시기 대마, 면, 저마직물이 발달했으며 15~16세기는 견직물이 많이 생산되었다.<sup>11)</sup>

그러므로 대마직물을 많이 생산한 지역인 함경도는 대마와 섞어 제직한 교직물이 많이 생산되었을 것이며, 저마를 많이 생산한 지역인 전라도는 저마와 섞어 제직한 교직물이 많이 생산되었을 것

<표 1> 각 시기별 混布의 주요 생산지역

	세종실록지리지(15C)	신증동국여지승람(16C)	임원경제지(18,19C)
경기도	.	.	.
전라도	濟州, 旌義, 大靜	.	.
경상도	.	東萊	東萊
충청도	.	.	.
강원도	.	.	.
황해도	.	.	.
함경도	慶源, 鏡城, 慶興, 富寧	端川, 鏡城, 吉城, 明川, 慶源 會寧, 鍾城, 穩城, 慶興, 富寧	端川, 鏡城, 明川, 富寧, 會寧, 穩城, 慶源, 興鐵
평안도	.	.	.

이다. 그리고 대마, 저마, 면 등 다양한 직물이 생산된 경상도는 이들 섬유를 사용한 교직물을 생산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Ⅲ. 교직물의 유통

상설상점으로 서울, 평양, 개성, 수원 등 몇 곳의 도시에만 있었던 시전 및 육의전은 선전, 면주전, 저포전, 면포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특별히 교직물을 취급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시전에 비해 규모와 자본이 영세하고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장시에서는 교직물이 실제로 유통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여기서 유통된 직물은 그 지역의 특산물일 가능성 또한 크다.

林園經濟志(5) 倪圭志 八域場市條에서 각종 직물이 유통된 場市의 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모든 직물은 호남(전라도), 영남(경상도) 場市를 통해서 가장 많이 유통되었으며, 이 중 면직물이 유통된 場市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대마직물, 견직물, 저마직물, 기타 교직물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직물, 대마직물, 견직물은 거의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으며 유통된 場市의 수는 면직물이 견직물보다 4배 정도 많다. 이것은 이 시기의료 및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면직물의 사회 경제적인 비중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거기에 비하면 교직물이 유통된 장시의 수는 7군데로 비교적 적다. 교직물이 유통된 장시는 호서(충청도), 호남(전라도), 관북지방(황해도)으로 그 중 호남지역 장시에서 활발한 유통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일정한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지역이 형성되어 지역적 분업에 의한 직물생산이 이루어졌으며 지역 상호간의 경제적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林園經濟志(5) 倪圭志 八域場市條에서 교직물이 유통된 장시를 살펴보면 호서지역(충청도)의 公州

<표 2> 각 직물별 유통 場市의 수

	견직물	대마직물	저마직물	면직물	기타(교직물)
경 기	3	18	0	31	0
호 서	3	8	4	15	1
호 남	11	27	18	39	5
영 남	20	46	19	62	0
관 동	7	19	0	21	0
해 서	6	14	3	22	0
관 서	11	2	1	38	0
관 북	2	13	0	14	1
총 계	63	147	45	242	7

(출처 : 林園經濟地(5) 倪圭志 八域場市條)

와 호남지역(전라도)의 礪山, 樂安, 光州, 寶城에서 斑紬직물이 유통되었으며 호서지역의 公州와 호남 지역의 礪山, 寶城에서 交織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斑紬는 絹絲와 綿絲를 섞어 짠 絹綿 交織物로서<sup>13)</sup> 아량주라고도 하며 위사는 명주실, 경사는 명주실 2올과 무명실 2올을 교대로 섞어 짠 것이다.<sup>14)</sup> 그리고 交織이라는 직물은 어떤 종류의 실들이 교직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 전 시기 호서·호남지역은 특히 저마직물이 발달했던 것으로 보아 저마와 교직된 직물이 많이 생산되었을 가능성 또한 크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중 교직에 관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世宗 1년(1419)에는 황제에게 絲麻 交織布, 絲紵 交織布 등을 진상했으며<sup>15)</sup>, 世宗 11년(1429)에는 19승 絲麻 交織布 등을 생산했으며<sup>16)</sup> 世宗 12년(1430)에는 內資寺, 內贍寺에 명해 명나라에 바칠 15, 16승 苧麻 교직포를 따로 짜게 하였다.<sup>17)</sup> 그러므로 15세기에는 교직물이 조선의 특산물로서 중국에 수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明宗 12년(1557)에는 絲綿 교직은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미 의복으로 착용한지가 오래되었다는 기록<sup>18)</sup>이 있는 것으로 보아 16세기에는 이미 면직물의 생산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絹綿 交織物을 의료로 비교적 많이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반해 燕山君 4년(1498)에는 유생에게 사치를 금하는 조항 중에 交織을 금한 기록이 있으며<sup>19)</sup>, 中宗 3년(1508)에는 사치스러운 풍속을 단속하기 위해 交織團領의 착용을 금하였지만 더러 입는 사람이 있다<sup>20)</sup>고 하였다. 위의 기록에서 처럼 사치스러운 풍속을 단속하기 위해 交織을 금한 기록도 있는데 그 이유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교직물이 당시의 유행 경향이었을 가능성, 또는 사치스러움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교직물을 걸감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 生絲의 수입이 급속도로 증가한 시대적인 현상을 감안하면 고급의 중국 生絲와의 交織을 금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우리나라 製絲기술의 수준은 비교적 열등하여 질 좋은 생사를

생산할 수 없었으며 사치를 금하는 품목에 交織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交織이 사치스러운 고급 옷감이라는 뜻이므로 질 좋은 중국 生絲와의 交織을 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중국과 조공무역관계를 통해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수준 높은 生絲(白絲:양질의 생사)를 수입할 수 있었으므로 제사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리하여 비교적 간단한 명주 생산에만 충당한 양잠, 제사기술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국내 사정과 이렇게 생산된 生絲는 조선 국내에서 소비될 뿐만 아니라 대마를 통해 일본에 재수출 하는 방식의 중개무역의 성질을 띠면서 한창 성행했었기 때문이다.<sup>21)</sup>

#### IV. 실증적 분석

조선시대 출토직물 중 교직물이 발견되는 경우는 더러 있으나 교직물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교직물은 이미 발표된 바 있는 천안시 풍세면 출토 제주 고씨 유물<sup>22)</sup> 중 3점, 경북 영주시 이사면 김흥조묘 출토 교직물<sup>23)</sup> 중 8점을 비롯하여 본 연구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벽진이씨 출토 교직물 3점<sup>24)</sup>, 경주 이씨 출토 교직물 2점<sup>25)</sup>, 흥국가묘 출토 교직물 1점, 적천사 소장 교직물 1점<sup>26)</sup>, 경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교직물 1점으로 모두 19점이다.

이미 발표된 김흥조묘 출토 교직물 8점과 제주 고씨 출토 교직물 3점을 제외한 8점의 교직물은 현미경 관찰 및 적외 분광 분석법 등을 이용하여 그 성분을 분석하였다.<sup>27)</sup> 이상 19점의 교직물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19점의 교직물 중 絹綿 교직물은 17점, 絹紵 교직물은 2점이었다. 이들 중에는 경사에 견사, 위사에 면사를 사용한 것이 13점, 경사에 면사, 위사에 견사를 사용한 것이 2점, 경사에 견사와 면사 1올씩 교대로 하고 위사에 면사를 사용한 것이 2점이다. 그리고 경사에 견사, 위사에 저사를 사용한 것이 2점이다. 그러므로 이들 중 2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사에 견사를 사용하였으며 경사는 위사에

<표 3> 교직물의 특성

번호		1	2	3	4	5	6
직물명		絹綿교직	絹綿교직	絹綿교직	絹綿교직	絹綿교직	絹紵교직
조직	바탕	평직	평직	평직	평직	평직	평직
	무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구성	경사	견사	견사	견사	견사	견사	견사
	위사	면사	면사	면사	면사	면사	저사
밀도 (가닥수 /inch)	경사	63.5	61	63.5	76.2	68.6	68.6
	위사	50.8	50.8	61	101.6	83.8	88.9
밀도비 ( $\frac{\text{경사밀도}}{\text{위사밀도}}$ )		1.25	1.20	1.04	0.75	0.82	0.77
포폭		38.5	37.5	37.5	32	38	37
승수		12.0	11.3	11.7	12	12.8	12.5
용도		홀단령	홀단령	담호 걸감 (안감:명주)	담호 걸감 (안감:명주)	철릭 걸감 (안감:명주)	홀단령
시기 (사용자의 생물연대)		1461~1528	1461~1528	1461~1528	1461~1528	1461~1528	1461~1528
소장처		영주시	영주시	영주시	영주시	영주시	영주시
출처		김홍조묘 발굴조사보고서, p.239	김홍조묘 발굴조사보고서, p.244	김홍조묘 발굴조사보고서, p.263	김홍조묘 발굴조사보고서, p.267	김홍조묘 발굴조사보고서, p.283	김홍조묘 발굴조사보고서, p.241
번호		7	8	9	10	11	12
직물명		絹紵교직	絹綿교직	絹綿교직	絹綿교직	絹綿교직	絹綿교직
조직	바탕	평직	평직	평직	평직	평직	평직
	무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구성	경사	견사	견사	견사	견사	견사	견사1울, 면사1울 교대로
	위사	저사	면사	면사	면사	면사	면사
밀도 (가닥수 /inch)	경사	68.6	53.3	53.3	68.4	61	56
	위사	88.9	50.8	58.4	63.3	61	41
밀도비 ( $\frac{\text{경사밀도}}{\text{위사밀도}}$ )		0.77	1.05	0.91	1.08	1	1.37
포폭		37.5	38	-	-	-	40
승수		12.7	10	(37 가정) 9.7	(37 가정) 12.5	(37 가정) 11.1	11
용도		홀단령	철릭 걸감 (안감:명주)	-	-	명목 걸감 (안감:명주)	홀단령
시기 (사용자의 생물연대)		1461~1528	1461~1528	1560~1640	1560~1640	1560~1640	?~1585
소장처		영주시	영주시	석주선 박물관	석주선 박물관	석주선 박물관	경북대학교 박물관
출처		김홍조묘 발굴조사보고서, p.242	김홍조묘 발굴조사보고서, p.283	제주고씨출토 한국복식 제15호, 1997, pp.7~8	제주고씨출토 한국복식 제15호, 1997, pp.7~8	제주고씨출토 한국복식 제15호, 1997, pp.7~8	벽진이씨 출토

<표 3> 교직물의 특성(계속)

번호		13	14	15	16	17	18	19
직물명		絹綿교직	絹綿교직	絹綿교직	絹綿교직	絹綿교직	絹綿교직	絹綿교직
조직	바탕	평직	평직	평직	평직	평직	평직	-
	무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구성	경사	견사	견사1올, 면사1올 교대로	견사	면사	면사	견사	견사
	위사	면사	면사	면사	견사	견사	면사	면사
밀도 (가닥수 /inch)	경사	66	54	76	40~48	54	64	-
	위사	52	44	50	28	44~48	56	-
밀도비 ( $\frac{\text{경사밀도}}{\text{위사밀도}}$ )		1.27	1.23	1.52	1.57	1.17	1.14	-
두께 (무압측시, mm)		0.21	0.336	0.257	0.402	0.375	0.34	-
포폭 (cm)		38	-	38.5	35	34	-	-
승수		12.3	(37가정) 9.8	14.4	7.6	9.0	(37가정) 11.7	-
용도		직령포 결감 (안감·면)	명주 액주음포 안감	명주 접유장의 안감	무명 접유장의 안감	명주바지 안감	직물조각	명주 접창의 안감
시기 (사용자의 생물연대)		?~1585	?~1585	1600~1684	1600~1684	1670년대	17세기 (추정연대)	-
소장처		경북대학교 박물관	경북대학교 박물관	광주민속 박물관	광주민속 박물관	안동 대학교	적천사	경남대학교 박물관
출처		벽진이씨 출토복	벽진이씨 출토복	경주이씨 출토복	경주이씨 출토복	홍극가묘 출토복	적천사 불복장직물	-

비해 제직시 직기에서 큰 장력을 받고 또 북의 왕래시 많은 마찰을 받으므로 위사에 비해 대체로 꼬임이 많고 실에 풀을 먹여 사용하는 등 더 튼튼한 원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면사보다 더 강도가 큰 견사를 경사에 사용하는 것은 더욱 튼튼한 직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교직물 중에서는 絹綿 교직물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제직시 경사보다는 위사에 많은 양의 실이 필요하므로 15세기 후반~17세기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면사를 위사로 사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중기 이후로는 면화의 재배와 면직물의 제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수요 또한 현저히 증가하였던 것이다.

19점의 교직물 중 용도를 알 수 없는 2점을 제외하고, 홑옷으로 사용된 경우가 6점, 의복의 결감으로 사용된 경우가 6점, 그리고 나머지 5점은 모두 의복의 안감으로 사용되었다. 홑으로 사용된 6점 중 5점은 모두 단령의 소재로 사용되었는데 문헌에 16세기경 사치스러운 풍속을 막기 위해 교직 단령을 금하였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교직 단령이 상당히 유행했음을 실증적 유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교직 단령은 絹綿 교직 뿐만 아니라 絹紵 교직물도 있었으며 이것도 역시 홑으로 사용되어 시원한 여름용 의류이면서 고급스러운 견직물의 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소재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접우의 경우, 결감으로 사용된 교직물 6점 중 안

감에 명주를 사용한 것은 5점, 면을 사용한 것은 1점이다. 걸감에 교직물을 사용하고 안감에 견직물을 사용한 경우가 의외로 많은 점이 특이하다. 그 이유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직물이 당시의 유행 경향이었을 가능성, 또는 사치스러움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교직물을 걸감으로 사용했을 가능성 또는 이때 사용된 교직물은 絹絲가 부족해서라기 보다 더욱더 질이 우수한 중국 生絲와의 교직 즉 질이 우수한 중국 生絲와 국산 면사와의 교직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등으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1점은 안감이 무명일 때 걸감에 교직을 사용한 경우로 이것은 실크의 감촉 및 태를 조금이라도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된 것이며 또 다른 1점은 걸감이 무명일 때 안감에 교직으로 사용한 경우인데 이 교직물은 7.6승으로 가장 성글며 경, 위사의 실이 굵고 거칠어 마치 면직물같이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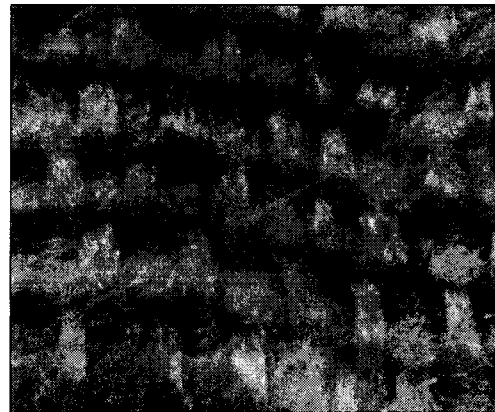
교직물이 안감으로 사용된 5점의 경우 중 걸감에 명주를 사용한 것은 4점, 면을 사용한 것은 1점으로 이것은 국산 絹絲의 질이 낮아지고 그 양이 충분치 못하여 絹絲를 절약하기 위해 면사 등과 섞어서 제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선중기가 되면 면화재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면직물의 의료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커졌으며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되는 면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이 당시 이렇게 제직한 교직물은 견직물이 가지는 광택, 질감, 태 등의 심미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면직물과 마직물의 실용성까지 고려한 편리한 의복소재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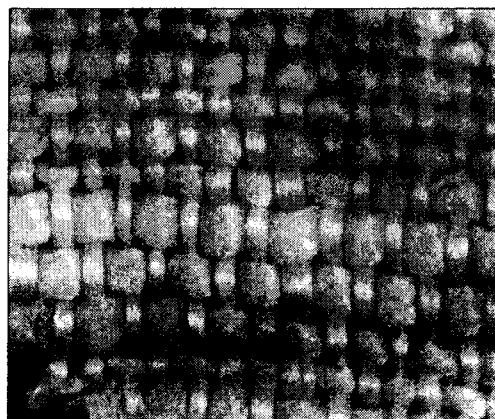
絹綿 교직물의 경사(견사), 위사(면사)밀도는 40~76.2×28~101.6/inch(평균:65.6×62.6/inch)이고 경, 위사 밀도비는 0.75~1.52(평균:1.10)로서 경, 위사의 밀도비가 거의 같다. 포폭을 모르는 5점의 絹綿 교직물을 한폭이 37cm라고 가정하여 승수를 환산하면 모든 絹綿 교직물의 승수는 7.7~14.4승(평균:11.3)으로 15세기경 중국에 수출했던 극세직의 15~19승에는 못미치지만 비교적 섬세한 편이다.

<사진 1>은 경사에 견사, 위사에 면사를 교직한

絹綿 교직물이며 慶州李氏 묘에서 출토된 명주 겹유장의 안감으로 이 교직물은 경, 위사의 밀도가 76×50/inch이다. 경, 위사 밀도비가 1.52로 경사가 위사보다 1.5배 더 치밀하여 색, 질감 등의 외관은 견직물의 紬와 비슷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위사(면사)가 경사(견사)보다 굵으므로 위사방향으로 꼰이 생기며 위사(면사)에는 S꼬임이 있다. 이것과 그 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적천사에 소장된 교직물이 있는데 이 직물은 경, 위사밀도가 64×56/inch이며 경, 위사 밀도비가 1.14이다. 다소간의 경, 위사 밀도차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특성은 거의 비슷하다<사진 2>.



<사진 1> 견면교직 -경주이씨 출토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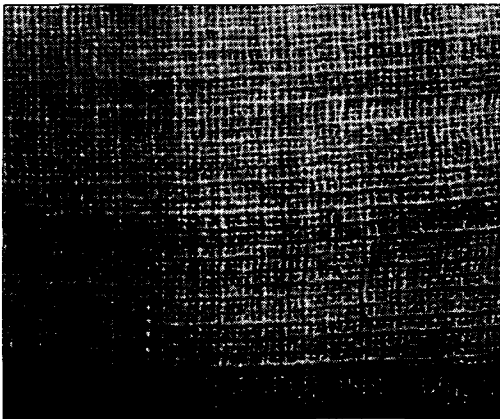


<사진 2> 견면교직-적천사 소장

<사진 3>은 경사에 면사, 위사에 견사를 교직한 견면교직물이며 慶州李氏 출토의 무명 겹유장의 안감에 사용된 것이다. 직물의 경, 위사의 밀도가 44~48×28/inch, 경, 위사의 밀도비가 1.57로서 경, 위사 밀도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직물이다. 그리고 면사인 경사는 물론이며 견사인 위사가 굵은 편으로 외관은 무명과 비슷하게 느껴지며 실제로 명주 겹유장의 사용된 안감보다 두께도 훨씬 두꺼우며 7.6승으로 가장 성근 직물이다. 그리고 면사인 경사에는 S꼬임, 견사인 위사에는 Z꼬임이 있다.



<사진 3> 견면교직-경주이씨출토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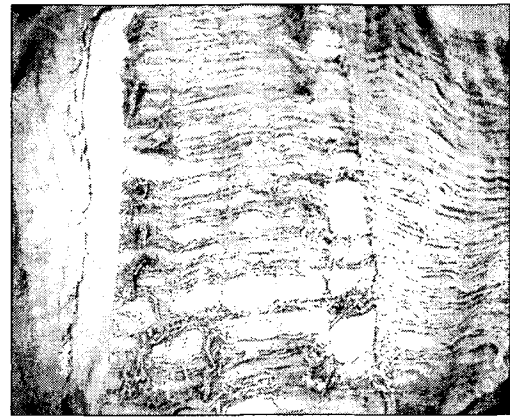


<사진 4> 견면교직-벽진이씨출토직물

<사진 4>는 벽진이씨 출토 홀단령의 겹감에 사용된 교직물이며 경사에 견사 1올, 면사 1올이 교

대로 배열되었으며 위사에는 면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명주 액주음포의 안감에 사용된 교직물도 역시 경사에 견사 1올, 면사 1올씩 교대로 배열하고, 위사에 면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는데 이 액주음포의 겹감은 명주이었던 것으로 보아 견사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교직물을 제작하여 안감으로 사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벽진이씨 출토 홀단령 외에 김홍조 묘 출토품 중에도 단령 4점에는 모두 교직물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中宗 3년(1508)에 사치스러운 풍속을 단속하기 위해 交織團領의 착용을 금하였다<sup>28)</sup>는 기록에서 처럼 실제로 교직 단령을 많이 착용한 것을 알 수 있는 실증적인 유물이다.



<사진 5> 견면교직-경남대학교박물관소장

그리고 경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명주 겹창의 안감에 사용된 직물의 경사는 취화하여 없어지고 위사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사진 5>. 옷감의 군데 군데 경사의 부스러기로 생각되는 검게 탄화된 분말상의 시료를 적외분광분석법에 의한 유물의 동정을 시도한 결과 SILK임이 밝혀졌다. 선행연구에서 이와 같은 유물은 경사의 밀도를 위사보다 훨씬 적게 하여 직조하여 경사가 먼저 취화하여 없어져 버린 것으로 이미 보고한 바 있다.<sup>29)</sup> 또 이와 유사한 유물이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사와 위사를 접착하여 만든포로 경사를 일정한 간격으로 정경하고 위사는 경사의 전면에만 한번, 뒷면에



한번 돌아가며 접착하여 만들었다고 하여 접착포라고 명명<sup>30)</sup>하기도 했지만 차후 더 많은 유물을 접한 후 직물의 명칭을 문헌에 근거해서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 론

1. 교직물은 경사, 위사에 성분이 다른 실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중국은 이미 漢代부터 제작되고 있었다. 특히 15세기에는 조선의 특산물로 중국에 수출될 정도로 極細織의 교직물을 생산했으며 16세기에는 이미 면직물의 생산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絹綿 교직물이 의료로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다.

2. 昆布 즉 교직물은 함경도, 전라도, 경상도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었으며 충청도 및 전라도 장시를 통해 대부분 유통되었다. 그리고 본 실증적 유물은 전라도 영암 지역에서 출토된 慶州李氏 직물이 3점, 경북 영주시 지역에서 출토된 김흠조 묘의 직물이 8점, 충남 천안시 지역에서 출토된 제주교씨 출토직물이 3점,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적천사의 소장직물이 1점, 경상남도 창녕 지역에서 출토된 碧珍李氏 직물이 3점 등이었다. 특히 견, 면, 마직물이 다양하게 발달한 경상도 지역에서는 絹綿, 絹紵, 紵綿 교직물 등의 다양한 교직물의 유형을 볼 수 있었다.

3. 본 연구에서 조사한 19점의 교직물 중 絹綿(絲綿) 교직물이 16점, 絹紵(紵絲) 교직물이 2점, 紵綿 교직물이 1점으로 絹綿 교직물이 가장 많았다. 그 이유로는 면화의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면사의 생산량이 많았던 15~17세기 유물이었으며 비교적 상류층의 의료로 사용되었던 점으로 보아 견사와 면사가 교직된 직물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4. 교직물은 경사에 견사, 위사에 면사를 사용한 것이 12점, 경사에 면사, 위사에 견사를 사용한 것이 2점, 경사에 견사와 면사 1울씩 교대로 하고 위사에 면사를 사용한 것이 2점이다. 그리고 경사에

견사, 위사에 저사를 사용한 것이 2점, 경사에 저사, 위사에 면사를 사용한 것이 1점이다. 일반적으로 경사는 위사에 비해 제직시 직기에서 큰 장력을 받고 또 복의 왕래시 많은 마찰을 받으므로 위사에 비해 대체로 꼬임이 많고 실에 풀을 먹여 사용하는 등 더 튼튼한 원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면사보다 더 강도가 큰 견사를 경사에 사용하는 것은 더욱 튼튼한 직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제직시 경사보다는 위사에 많은 양의 실이 필요하므로 18세기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면사를 위사로 사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 본 연구는 조선시대 교직물을 살펴보기 위한 첫단계로 교직물의 생산과 유통 및 15~17세기의 유물을 중심으로 실증적 고찰을 하였다. 18세기 이후의 유물은 접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묘제의 특성상 출토복식이 발견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결과이지만 조선후기에도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교직물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후속연구에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명주와 삼베의 교직물로 전체적으로는 삼베같은 느낌이 든다.
- 2) 명주와 모시의 교직물로 전체적으로는 생명주 같은 느낌이 든다.
- 3) 위사에는 굵기가 같은 명주실을 사용하고, 경사에는 명주실 2울, 무명실 2울을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여 제작한 것
- 4) 周汎 高春明 編著,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1996, p.537
- 5) 吳淑生·田自兼, 中國染織社, 上海人民出版社, 1986, p.288
- 6) 周汎 高春明 編著, 앞책(1996), p.527
- 7) 吳淑生·田自兼, 앞책(1986), p.255
- 8) 吳淑生·田自兼, 앞책(1986), p.288
- 9) 布目順郎, 目で見る纖維の考古學, 染織と生活史, 1992, p.45, p.193

- 布目順郎, 絹と布の考古學, 雄山閣, 소화 63년, p.163
- 10) 장현주, 조선시대 견직물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p.31~32
  - 11)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임원경제지(5) 예규지 팔역물산조  
장현주, 앞논문, pp.27~34
  - 12) 임원경제지 예규지(5) 팔역장시조
  - 13) 민중서관 편집국, 李相殷 監修, 漢韓大字典, 민중서관, 1991, p.557  
林園經濟地 展功志 卷3, "...又繭絲爲經棉絲爲緯曰交織繭絲爲經而棉絲二縷繭絲二縷相間爲 緯曰 斑紬..."
  - 14) 민중서관 편집국, 李相殷 監修, 앞책(1991), p.557
  - 15) 세종실록 권3 세종 1년(1419) 1월 22일(정묘)
  - 16) 세종실록 권 44 세종 11년 6월 갑오  
홍희유, 조선수공업사 2, 백산자료원, 1991, p.102
  - 17)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1430) 7월 23일(신유)
  - 18) 명종실록 권 20 명종 11년(1556) 6월 병오
  - 19) 연산군일기 연산군 4년(1497) 9월 경진
  - 20) 중종실록 권7 중종 3년(1508) 11월 6일(경자)
  - 21) 특히 17세기에는 전 기간을 통해서 중개무역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상인들이 청의 白絲를 수입하여 일본에 재수출하고 이와 동시에 왜인을 대량수입하여 청에 수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중개상인 특히 동래상인들은 중개무역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1670년대 기록에도 당시 조선인이 청에서 무역해온 백사는 모두 왜관으로 들어갔는데 수익이 매워 컸다고 한다. 이것은 白絲 100근을 60근으로 무역하여 왜관에 팔면 값이 160근이나 되어 큰 이익을 얻으므로 白絲가 비록 몇 만근이라 하더라도 모두 다 팔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 22) 심연옥·민길자, 조선전기 출토 직물의 종류와 그 제작기술에 대한 고찰 -천안시 풍세면 출토 제주고씨 유물을 중심으로-, 한국복식 제15호, 1997, pp.7~8  
충남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馬駕山에 있는 제주고씨 문충공파 참판공 汝雨와 配位 丹陽禹氏, 그의 아들 진위장군 擎行의 묘 이장 중 출토된 것으로 임진왜란 전후기의 유물로 현재 석주선 기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23)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報告書, 1998, 영주시  
경북 영주시 이사면에 위치한 김홍조묘를 이장하는 중에 출토된 것으로 현재 영주시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미 그 유물들에 관해서는 발표된 바 있다. 掌隸院 判決事(정3품)의 관직을 지냈으며 생몰연대가 1461~1528인 점으로 미루어보아 15세기말~16세기 초반에 사용했던 직물로 추정된다.
  - 24)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면에서 출토된 것으로 그 묘주는 당상관 무관으로 생존연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출년이 1585년으로 이 유물은 16세기의 유물로 현재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박성실,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 -임진왜란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29)
  - 25) 慶州李氏 출토직물은 전라남도 靈巖郡 西湖面 長川리 야산에 소재한 天安金氏 묘역의 분묘 이장시 출토된 의복에 사용된 직물들로서 현재 광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씨의 남편인 전택은 인조 17년(1639년)에 등과하여 숙종 1년(1675년, 64세)에 안동판관, 숙종 2년(1676, 65세)에 해미현감 등의 관직생활을 했으며 이들 직물은 1600년대 후반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26) 경상북도 청도에서 밀양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찰인 적천사에는 다수의 의복(장삼 및 포류)과 수 중의 직물 조각이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 소장되어 있는 직물의 정확한 연대 추정은 어려우나 소장되어 있는 의복이 조선중기(17세기)의 형태이므로 직물 또한 같은 연대로 보고 고찰하고자 한다.
  - 27) 권영숙·백영미·장현주, 적외분광분석에 의한 섬유류 유물의 재질 동정에 관한 연구, The 17th International Costume Association Congress, 1998, pp.221~222
  - 28) 중종실록 권7 중종 3년(1508) 11월 6일(경자)
  - 29) 권영숙·백영미·장현주, 앞논문(1988), pp.221~222  
이와 유사한 유물은 조선전기 출토 직물의 종류와 그 제작 기술에 대한 고찰-천안시 풍세면 출토 제주고씨 유물을 중심으로-(한국복식 15호, 1997, p.8)과 日迎 出土 高靈 申氏 遺物 小考 (한국복식 17호, 1999, p.57)에서도 발견되어 이미 보고된 바 있다.
  - 30) 심연옥, 한국직물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2002, p.43